

경남 함안의 매력에 취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 함안의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지를 소개한다.

아라가야 시대의 최대 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말이산고분군(사적 제515호)은 찬란했던 아라가야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재 '가야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시대 최대 고분군이다.

최근에는 탐방 안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누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분군을 탐방하고 역사적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연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입곡군립공원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운이 좋다면 이른 아침에 피어오른 물안개가 연출하는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도 있다.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연두색의 입곡출렁다리가 공원의 매력이다. 길이가 96m에 이르는, 흔들리지 않는 듯 출렁대는 짜릿함이 묘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다리 끝에서 나무 계단을 오르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저수지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팔각정이 있다.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힐링, 악양생태공원

대산면 남강변에 위치한 약 26만㎡ 규모의 악양생태공원은 수십 종의 야생화, 생태 늪지 등과 함께 약 1만㎡의 드넓은 잔디 광장이 조성됐다. 제방 사이로 흐르는 남강과 해 질 녘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핑크물리가 만개해 낭만적인 핑크빛 물결을 이루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핑크물리 외에도 치유의 숲길, 메타세콰이어숲, 숲속 쉼터 등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을 거닐며 힐링과 사색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가을이면 악양독방과 공원 곳곳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도 또 다른 볼거리다.

강변을 따라 난 데크를 걸어가면 멀지 않은 곳에 악양루가 나온다. 바위 위에 지어진 악양루에서는 유유히 흐르는 남강과 함께 넉넉하게 펼쳐진 들녘, 끝없이 이어진 제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선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무진정(無盡亭)

무진정은 조삼(趙參) 선생이 후진양성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함안면 괴산리 지금의 자리에 직접 지은 정자로 자신의 호를 따라 무진정(無盡亭)이라 명명했다.

무진정은 사계절 언제 와도 그만의 기품과 풍치를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성산산성이 있는 뒷산의 숲과 잘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또 매년 사월 초파일이면 전통 불꽃놀이인 함안낙화놀이 이곳에서 열리는데 달빛 가득한 연못에 내려앉은 은은하고 화려한 꽃불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

